

남녀 대학생의 월경 지식, 태도 및 교육요구도 비교 분석

황라일

신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Comparison of menstrual knowledge, attitudes and education needs of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Rah-Il Hwang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hinha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월경 지식, 월경 태도 및 월경 교육요구도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일개 대학의 남녀 대학생 총 3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SPSS ver.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월경 지식이 낮았고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월경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월경 교육 및 정보에 대한 이해도, 교육의 도움 정도 및 충분성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경 교육에 대한 교육 내용 역시 남녀간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성인 초기인 남녀 대학생 대상 월경 지식 및 태도를 함양하고 상호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남녀 맞춤형 교과 및 비교과 융합적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 월경, 지식, 태도, 교육요구도, 대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menstrual knowledge, menstrual attitude and education needs of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A total of 385 students in a university were surveyed.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male students had lower menstrual knowledge than female students and female students had a negative attitude toward menstruation. In addition, Male students were found to have insufficient understanding of menstrual education and perceived that menstruation education was not enough. Educational needs about menstruation is also different between men and women.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curriculum and comparative programs to enhance the knowledge and attitudes of menstrual college students and to enhance their mutual understanding.

Key Words : menstruation, knowledge, attitude, educational needs. university student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월경은 여성의 생식능력을 상징하며 가임기 여성의 건강을 대표하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여성들에게 월경은 자연스러운 생리적 현상이며 모성역할에 필수적 준비과정이다[1].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은 월경주기에 따라 기분, 행동 및 신체증상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불편감을 경험하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주기적으로 방해를 받음으로써 월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2-3]. 또한 여성들은 월경으로 인한 불편감을 숨기고 평상시처럼 안정된 상태로 보여지는 것을 바람직한 태도로 받아들여도록 학습되어졌다[4-5]. 이처럼 여성들이 월경에 대한 고정관념과 태도를 내재화하여 월경을 여성만의

에 따라 기분, 행동 및 신체증상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불편감을 경험하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주기적으로 방해를 받음으로써 월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2-3]. 또한 여성들은 월경으로 인한 불편감을 숨기고 평상시처럼 안정된 상태로 보여지는 것을 바람직한 태도로 받아들여도록 학습되어졌다[4-5]. 이처럼 여성들이 월경에 대한 고정관념과 태도를 내재화하여 월경을 여성만의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Research Grant of ShinHan University 2018.

*Corresponding Author : Rah-Il Hwang (hwangri@hanmail.net)

Received July 23, 2018

Revised September 28, 2018

Accepted October 20, 2018

Published October 28, 2018

비밀스러운 영역으로 숨기고 살아가도록 사회화 되면서, 남성들에게 월경은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 않는 관심 밖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4, 6-7].

한편 대학생은 사회심리적 및 경제적 측면에서 미성숙하고 자신의 미래 직업과 삶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많은 혼란을 거듭하는 시기이다. 또한 자신이 선호하는 성적 대상을 선택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적절한 성역할을 학습하는 등 성적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주요 발달단계이다[8]. 월경 전 증상 호소가 가장 많은 집단인 여자 대학생들은 월경 전후로 학습능력저하, 대인관계에서의 갈등, 충동성과 공격성의 증가 및 삶의 질 저하 등을 경험하지만 월경에 대해 주로 회피적 대처방식을 택하고 있다[9-11]. 남자 대학생도 음성적으로 성 지식을 습득하는 경우가 많아 여성의 월경에 대해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여자 대학생은 월경 기간 동안 경험하는 생리적 및 심리적 변화에 대해 이성 친구에게 이해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의사소통 및 갈등 심화 등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8]. 더욱이 이성교제가 활발한 시기이지만 성 관련 교육 및 제도가 미비한 대학생 시기에 이들이 가지는 월경에 대한 잘못된 속설, 편견 및 부정적 태도는 원하지 않는 임신, 낙태 등 사회적 문제의 위험성을 높이므로 월경 관련 올바른 지식과 태도 확립을 위한 교육이 시급하다[12].

그러나 우리나라 성교육 표준안에는 월경 교육을 초등학교 시기로부터 한정하고 있고 교육내용도 주로 호르몬 변화 관련 생물학적 지식만을 포함하고 있어,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월경 교육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다[13]. 또한 개방적 서구 문화와 남성중심적 전통문화가 여전히 혼재하고 있는 가정 내에서의 월경 관련 일상적 대화 및 교육도 주로 여성만을 대상으로 이루지고 있다[5]. 이에 남녀 이중적 성 윤리관을 탈피하여 상호공유하며 관심을 가지고 월경을 인식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월경에 대한 연구는 주로 초등학교부터 폐경기까지 여성에게 한정되어 있으며, 대학생 대상 월경 관련 연구는 여자 대학생이 경험하는 월경전증후군 현황 및 관련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5, 9, 10]. 월경에 대한 지식은 월경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나 자유롭게 성문화에 노출되어 다양한 성 건강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대학생 대상 월경 관련 지식 및 태도 관련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남녀 상호배타적 윤리관과 성역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 성역할 사회화 과정에서 양성평등 의식에 차이가 있지만 이를 상호보완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특히 여성 누구나 주기적으로 경험하는 생리적 현상이며 중요 생식기능인 월경에 대해 남녀 대학생이 어떠한 인식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월경 관련 교육요구도는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남녀 대학생의 월경에 대한 지식 및 태도, 교육요구도를 비교분석하여 이들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월경 관련 지식, 태도 및 교육요구도를 비교 분석하여, 향후 월경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남녀 상호 이해도 증진 방안 모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남녀 대학생의 월경 지식과 태도 차이를 비교분석한다.
- 둘째, 남녀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별 월경 지식과 태도 차이를 분석한다.
- 셋째, 남녀 대학생의 월경 교육에 대한 인지도를 비교분석한다.
- 넷째, 남녀 대학생의 월경 관련 교육내용 요구도를 비교분석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의 월경 관련 지식, 태도 및 교육요구도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서술적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경기도에 소재한 4년제 일개 대학의 남녀 학생을 편의표집하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먼저 연구자가 해당 학교 교내에서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설명하고 설문 협조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설문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여 서면 동의한 경우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는 389명이었으나 설문을 불완전하게 작성한 4명을 제외하고 총 385명이 작성한 설문지를 통계분

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 program을 이용하여 유의수준=.05, 효과의 중간크기 .30, 검정력 .95으로 산정하였을 때 최소인원은 134명이었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5월 19일부터 6월 15일까지였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의 자료는 구조화 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자가 작성한 후 간호학 교수 3인과 보건교사 1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은 후 수정보완하여 연구도구로 최종활용하였다. 먼저 월경 지식 관련 설문지는 Yoon(2006)의 월경 지식에 대한 문항을 토대로 대학생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월경의 신체심리적 증상(월경의 정의, 주기, 증상, 월경통 및 월경전증후군) 12문항과 월경 관리(월경통 관리, 월경용품 사용방법 등)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이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으로 0~19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4이었다.

월경 관련 태도는 Yang & Yoon(2001)의 월경에 대한 태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월경 관련 태도는 총 21문항이며, 하위 영역으로 여성만의 비밀 8문항, 여성의 집 5문항, 전통적 여성성 5문항, 여성의 상징성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7점 Lin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로 하여 점수의 범위는 21점에서 147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월경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 가 .8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가 .84이었다. 그 밖에 월경 정보에 관한 인지 문항(정보 취득 경로, 정보의 이해도, 충분성, 교육시기 등)과 월경 관련 교육내용 요구도 문항(월경 의미, 양/색, 월경 주기, 월경정서, 월경통관리, 월경 중 관리방법, 월경 태도) 및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전공학과, 경제수준, 거주형태, 고등학교, 주성장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대상자는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남녀 대학생이었다. 연구목적과 연구내용에 대한 설명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절대로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밀보장 관련 내용을 읽은 후 연구참여에 동의하고 서명한 자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도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15~20분 정도였다.

2.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그리고 평균과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를 구하였다. 남녀 대학생의 월경 지식과 태도 차이는 t-test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식과 태도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ANOVA 분석 시 사후분석은 DUNCAN을 이용하였다. 남녀 대학생의 교육 인지도에 대한 차이는 χ^2 -test를, 월경관련 교육요구도는 t-test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여자(60.0%)가 남자(40.0%) 보다 많았고, 연령은 평균 20.6(SD=2.7)세였다. 전공계열은 보건계열(59.4%)이 비보건계열(40.6%) 보다 많았고 학년은 1학년(44.0%)이 가장 많았다. 연구대상자의 경제상태는 중간계층(83.6%)이, 가족 동거여부는 동거하고 있는 경우(77.4%)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대상자의 주성장지는 대도시(49.1%)와 중소도시(40.5%)가, 출신고등학교는 일반계(84.9%)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대상자 중에서 현재 이성교제를 하고 있지 않는 경우(65.5%)가 약 2/3정도였고, 이성친구와 월경에 대해 이야기를 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52.6%)는 약 과반수정도였다 Table 1 참조.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ies	Frequency (or Mean)	Percent (or SD)
Gender	Male	154	40.0
	Female	231	60.0
Age		20.6	2.7
Major	Health	225	59.4
	Non-health	154	40.6
Grade	1	169	44.0
	2	76	19.8
	3	53	13.8
	4	86	22.4

Economic Status	High	24	6.3
	Middle	321	83.6
	Low	39	10.2
Living with Family	Yes	298	77.4
	No	87	22.6
Growth Area	Metropolitan	189	49.1
	Small city	156	40.5
	Rural area	40	10.4
High School	General	327	84.9
	Specialized Vocational	51	13.2
	etc	7	1.9
Romantic relations	Yes	133	34.5
	No	252	65.5
Conversation experience	Yes	201	52.6
	No	181	47.4

3.2 남녀 월경 지식과 월경 태도 비교

연구대상자의 월경 지식과 태도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월경 지식은 총 19점 중 여학생의 경우 15.17(SD=2.14)점으로 남학생의 경우 10.85(SD=5.13)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9.90, p=.000$). 월경에 대한 신체심리적 증상과 월경 관리 모두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경 지식 항목 중에서 남학생이 정답율이 낮은 문항은 ‘키와 몸무게에 따라 사용하는 생리대의 사이즈가 다르다.’, ‘생리대는 약 2/3 정도 젖었을 때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월경 출혈은 약 30분간 참을 수 있다.’ 순으로 나타났다.

월경 태도는 여학생의 경우 58.87(SD=15.97)점으로 남학생의 경우 55.49(SD=15.54)점보다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2.06, p=.041$). 월경 태도의 하위 영역에서는 여성의 집($t=-2.06, p=.040$)과 여성의 상징성($t=-2.19, p=.029$) 영역에서 각각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만의 비밀($t=-0.74, p=.463$)과 전통적 여성성($t=-1.27, p=.206$)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들은 ‘월경은 귀찮은 일이다’, ‘월경을 하지 않는 남성들이 부럽다.’, ‘월경의 여성의 아름다움의 상징이다’ 항목에서 가장 부정적 응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Comparative analysis of menstrual knowledge and attitudes

Variables	Male (M/SD)	Female (M/SD)	t/p
Knowledge	10.85 (5.13)	15.17 (2.14)	-9.90 (.000)
Physical/ Psychological phenomenon	7.13 (3.67)	10.02 (1.64)	-9.16 (.000)
Management	3.72 (1.82)	5.16 (0.99)	-8.94 (.000)
Attitudes	55.49 (15.54)	58.87 (15.97)	-2.06 (.041)
confidentiality of women	17.55 (7.30)	18.13 (7.82)	-0.74 (.463)
Burden of woman	17.55 (5.28)	18.77 (6.32)	-2.06 (.040)
Traditional feminine gender	10.28 (5.33)	11.00 (5.51)	-1.27 (.206)
Feminine symbolism	10.11 (3.45)	10.97 (3.93)	-2.19 (.029)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월경 지식과 월경 태도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월경 지식과 월경 태도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월경 지식의 경우 보건계열 학생(14.60점)이 비보건계열 학생(11.86점)보다 높았고($t=6.08, p=.000$), 학년별로는 4학년(15.41점)이 가장 높았고, 2학년(11.82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11.10, p=.000$). 또한 대상자의 주성장지가 대도시(14.08점)인 경우는 중소도시(12.69점)인 경우보다 월경 지식이 높았고($F=4.82, p=.009$), 이성 친구가 있는 경우(14.53점), 이성친구와 월경에 대해 대화를 나누어본 적이 있는 경우(14.31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각각 월경 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4.25, p=.000$; $t=4.23, p=.000$). 한편 월경 지식과는 달리 일반적 특성별 월경 태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Difference of menstrual knowledge and attitudes by subject characteristics

Categories	Knowledge		Attitudes	
	Mean (SD)	t/F (p)	Mean (SD)	t/F (p)
Age				
<=21	13.39 (4.10)	-0.29 (.771)	57.57 (14.99)	0.15 (.878)
>21	13.52 (4.42)		57.30 (17.38)	

Major				
Health	14.60 (2.99)	6.08 (.000)	57.37 (15.87)	0.00 (.999)
Non-health	11.86 (5.02)		57.36 (15.78)	
Grade				
1	13.31 (4.12) ^b	11.10 (.000)	57.77 (14.92)	1.37 (.253)
2	11.82 (4.83) ^a		58.14 (15.87)	
3	12.98 (4.37) ^{a,b}		53.62 (15.42)	
4	15.41 (2.78) ^c		58.99 (17.78)	
Economic Status				
High	14.29 (4.32)	0.53 (.590)	57.96 (13.11)	.01 (.989)
Middle	13.40 (4.25)		57.55 (15.86)	
Low	13.28 (3.87)		57.33 (17.80)	
Living with Family				
Yes	13.51 (4.16)	0.60 (.551)	57.79 (15.93)	0.62 (.533)
No	13.21 (.551)		56.59 (15.67)	
Growth Area				
Metropolitan	14.08 (3.64) ^a	4.82 (.009)	56.19 (15.87)	1.84 (.160)
Small city	12.69 (4.67) ^b		59.39 (15.15)	
Rural area	13.38 (4.38) ^{a,b}		56.50 (18.07)	
High School				
General	13.41 (4.30)	0.07 (.939)	57.42 (15.42)	0.42 (.655)
Specialized Vocational	13.65 (3.81)		57.41 (18.14)	
etc	13.57 ¹⁴		63.00 (19.91)	
Romantic relations				
Yes	14.53 (2.97)	4.25 (.000)	56.35 (14.89)	-1.06 (.292)
No	12.87 (4.64)		58.14 (16.34)	
Conversation experience				
Yes	14.31 (3.41)	4.23 (.000)	56.51 (15.56)	-1.30 (.194)
No	12.49 (4.78)		58.63 (16.28)	

3.4 월경 정보 관련 인지도 비교

월경 관련 정보는 남학생(54.5%)과 여학생(47.6%) 모두 학교교육을 통해 가장 많이 습득하였다. 그러나 여학생은 그 다음으로 가족(23.4%)이라고 응답을 하였으나

남학생은 가족(4.5%)이라는 응답을 가장 낮게 하여 월경 정보 습득에서 남녀 간에 차이를 보였다($\chi^2=32.45, p=.000$) Table 4 참조. 현재 습득한 월경 정보가 월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도움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남학생(13.6%)에서 여학생(5.2%) 보다 높아 차이를 보였다($\chi^2=14.03, p=.001$). 월경 정보의 이해도에 대해 남학생(26.0%)은 여학생(12.1%) 보다 습득한 정보가 ‘어렵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chi^2=20.50, p=.000$). 월경 교육의 충분성에 대해서도 남학생(36.4%)은 여학생(19.9%) 보다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chi^2=14.92, p=.001$). 월경 교육은 남녀 모두 성교육전문가, 학교 보건교사, 정규 교과 순으로 응답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4.84, p=.304$).

Table 4. Comparative analysis of menstruation educational experience

Variables	Male (N%)	Female (N%)	χ^2 (p)
Source			
School	84 (54.5)	110 (47.6)	32.45 (.000)
Family	7 (4.5)	54 (23.4)	
Friend	15 (9.7)	14 (6.1)	
Expert	15 (9.7)	11 (4.8)	
Mass media	15 (9.7)	30 (13.0)	
Etc	18 (11.7)	12 (5.2)	
Helpfulness			
Low	21 (13.6)	12 (5.2)	14.03 (.001)
Middle	62 (40.3)	74 (32.0)	
High	71 (46.1)	145 (62.8)	
Difficulty level			
Difficulty	40 (26.0)	28 (12.1)	20.50 (.000)
Middle	92 (59.7)	132 (57.1)	
Easy	22 (14.3)	71 (30.7)	
Sufficiency			
Lack	56 (36.4)	46 (19.9)	14.92 (.001)
Middle	63 (40.9)	102 (44.2)	
Enough	35 (22.7)	83 (35.9)	

Method			
Regular course	30 (19.7)	67 (29.0)	4.84 (.304)
School nurse	54 (35.5)	72 (31.2)	
Special lecture	61 (40.1)	84 (36.4)	
Mass media	4 (2.6)	6 (2.6)	
Etc	3 (2.0)	2 (0.9)	

3.5 월경 관련 교육내용 요구도 비교

연구대상자의 월경 관련 교육내용 요구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여학생은 월경 중 주요 관리방법(M=4.48, SD=0.60), 월경통 완화방법(M=4.45, SD=0.60), 월경시 정서 및 감정상태(M=4.39, SD=0.67) 순으로 교육요구도가 높았다. 남학생은 월경 중 주요 관리방법(M=4.20, SD=0.91), 월경에 대한 태도(M=4.19, SD=0.93), 월경 주기(M=4.11, SD=0.87)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경 주기를 제외한 전 항목에서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월경 교육 요구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Table 5 참조.

Table 5. Comparative analysis of needs for menstruation education

Variables	Male (M/SD)	Female (M/SD)	t/p
Meaning of menstruation	3.97 (0.94)	4.24 (0.70)	-3.30 (.001)
Color/Volume of the menstrual discharge	3.47 (1.02)	3.83 (0.87)	-3.60 (.000)
Menstrual cycle	4.11 (0.87)	4.26 (0.65)	-1.93 (.054)
Mood during period	3.99 (0.94)	4.29 (0.66)	-3.62 (.000)
Alleviating of pain	4.08 (0.95)	4.39 (0.67)	-3.38 (.001)
Important tips during menstruation	4.20 (0.91)	4.48 (0.60)	-3.34 (.001)
Attitude toward menstruation	4.19 (0.93)	4.45 (0.60)	-3.12 (.002)
Use of sanitary pads	3.73 (1.13)	4.15 (0.84)	-3.90 (.000)

4. 논의

본 연구는 여성의 기본 생리현상인 월경에 대한 남녀 대학생들의 지식, 태도 및 교육요구도를 비교하고자 시도하였다.

월경에 대한 지식은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낮았으며, 그 중에서도 월경용품 관리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대 대학생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월경 지식 수준이 낮았고, 그 중에서도 월경용품 관련 항목에서 가장 낮았다는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14]. 한편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남학생의 월경 지식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을 때 57.1점에 그치는 수준이었다. 특히 ‘월경 출혈을 30분간 참을 수 있다’는 항목에서 1/3 정도만 정답율을 보인 결과는 매우 우려할 수준이라 판단된다. 이는 ‘생리대 교환을 집에서 하지 왜 학교까지 와서 하느냐’, ‘월경도 소변처럼 참을 수 있다’ 등의 남성 응답이 여성의 월경에 대한 관심 부족과 함께 성 의식 자체가 없는 것이라는 지적과 유사한 맥락이다[6]. 이렇듯 성인기에 접어드는 남자 대학생이 월경의 기본 생리 반응 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나라 정규 보건교육과정에서의 월경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방증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따라서 향후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실시된 월경 교육을 체계적이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또한 외국 문헌에서 월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남성이 여성과 함께 월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옹호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과 같이, 추후 우리 나라에서도 남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월경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 주장한다[15,16].

한편 월경 태도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여성의 짐과 여성의 상징성 등 하위영역에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대 대학생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는 월경 태도에 부정적이라는 연구와, 간호대학생의 경우 월경 태도 영역 중 여성의 짐, 여성의 상징성, 여성만의 비밀, 전통적 여성상 순으로 부정적이었다는 연구와 유사한 맥락이다[10,14]. 그러나 우리와 같은 동양 문화권인 대만의 남자 청소년들은 여자 청소년들에 비해 월경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보인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17]. 여성들이 가지는 부정적인 월경 태도는 건전한 성정체감 형성과 월경진증후군 증상 경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월경 태도를 긍정적으로 확립시킬 수 있는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14,18,19]. 특히, 월경 태도는 문화적 배경과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받으므로, 남성 중심적 사회문화를 탈피하고 월경에 대한 사회적 기대 및 태도를 보다 긍정적으로 전

환시킬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 절실할 것이라 판단된다[4,20,21].

대상자의 월경 지식은 전공계열, 학년, 주성장지, 이성교제 및 이성친구와 월경 관련 대화 경험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나, 월경 태도는 일반적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대학생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월경 지식 및 태도를 분석하는 연구가 부족하여 본 연구와 비교할 수 없지만, 여대생의 일반적 특성별로 월경 태도의 차이는 없었다는 선행연구와는 동일한 결과이다[20]. 본 연구를 토대로 볼 때 향후 보건교육적 교육을 접할 기회가 적은 비보건계열의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월경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성교제 시 월경 관련 대화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사례 중심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에 포함된 일반적 특성 변수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본 연구에 포함된 변수 이외 대상자의 사회심리적 특성, 월경 관련 정보 노출, 사회문화에 대한 인식 등의 변수를 포함하여 이러한 변수들과 월경 지식 및 월경 태도와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한편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월경 관련 정보를 여러 통로로 획득하지만 이러한 정보가 월경을 이해하는데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향후 남학생을 대상으로 월경 정보에 대한 이해도와 충분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심층적 면접조사를 제안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여학생들은 학교 다음으로 가족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반면 남학생들은 가족을 통해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이 매우 낮게 나타난 점은 주목해야 할 결과라 판단된다. 예컨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월경 교육이 월경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형성함에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성을 금기시 하는 가족 풍토로 남성은 월경 교육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가정 내 남아 양육과정에서의 월경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 대상의 다학제간 융합적 월경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고 판단된다[22,23]. 또 다른 한편 초중고등학교 남녀 학생별로 월경 교육 인지도를 비교 분석하는 반복연구를 제안하며, 이를 통해 성별, 발달단계별 특성에 부합되게 월경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제안한다.

남녀 대학생 모두 월경 관리방법에 대해서 가장 알고 싶어했고 그 다음으로 여학생은 월경통 완화방법과 월경

시 정서 및 감정상태를, 남학생은 월경에 대한 태도, 월경 주기를 알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 개정 보건교육과정 분석 결과, 정규 고등학교 교육내용에는 올바른 정서적, 심리적 측면의 변화와 적응 및 월경기 자가관리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대신 생식기의 질병과 건강관리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13]. 이를 토대로 볼 때 앞으로 입학할 대학생들은 월경기 주요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이 더욱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대학생 대상 월경을 포함한 성 교육의 체계적 프로그램이 거의 전무하므로 남녀 대학생 대상으로 월경 관련 경험에 대한 집단 공개토론을 비롯하여 개인 상담, 온라인 강좌 및 캠페인 등 캠퍼스 기반으로 교과 및 비교과의 융합적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라 제안한다[24,25]. 또한 이러한 월경 교육이 남녀 상호간 성숙한 인간관계 구축과 사회심리적으로 바람직한 성적 역할 수행 등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먼저 경기도 내 일개 대학 남녀 대학생만을 임의표집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하였다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대학생 전체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대표성 있는 집단을 표집하여 반복연구가 실시되기를 제안한다. 또한 대학생의 월경 교육 요구도와 관련하여 교육내용에 국한되어 조사하였으므로 향후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방법 및 매체 등 보다 구체적으로 교육요구도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본 연구는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된 기존 연구와는 달리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월경 지식과 월경 태도 및 월경 관련 교육 내용 요구도를 비교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성인 초기인 남학생의 월경 지식 수준이 낮고, 여학생의 경우는 월경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임을 확인하였다. 향후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월경의 생리적 과정 이외 월경 관리방법, 월경 관련 심리정서적 상태 등에 대해 성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통한 남녀 상호 이해도 및 관계 증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월경 지식, 월경 태도 및 월경 교육요구도를 비교하여, 향후 이들 특성에 부

합하는 월경 교육 프로그램 및 남녀 상호관계증진 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 결과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월경 지식 수준이 낮은 반면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월경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월경 관련 정보를 학교 이외 가정에서 습득하는 경우가 적었으며, 월경에 대한 이해도 및 충분성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경 교육내용 요구도는 남녀 모두 월경 중 주요 관리방법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여학생은 월경통 완화방법, 월경 시 정서 및 감정상태, 남학생은 월경에 대한 태도, 월경 주기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초중고 월경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평가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발달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월경 교육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제언한다. 또한 성인 초기인 남녀 대학생의 월경 지식 및 태도를 함양하고 상호 이해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캠퍼스 기반의 다학제간 융합적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J. H. Jun. (2007). *Effects of experience based menstrual education program on menstrual attitude and menstrual discomfort among female elementary students*. Unpublished Master thesis, Busan University, Busan
- [2] J. M. Park, S. R. Suh, K. Y. Kim, H. J. Kim. (2012). Female workers' attitudes toward menstruation, premenstrual discomfort and coping metho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16(1), 100 - 112.
- [3] H. J. Choi. (2006). *The relation of premenstrual symptom, hypochondriasis and menstrual attitude*. Unpublished Master thesis, Catholic University. Seoul.
- [4] J. E. Noah. (1995). A study of the experiences of menstruation and the cultural taboos. *Women's Studies Review*, 12, 373-374.
- [5] D. O. Yang & G. H. Youn. (2001). Attitudes toward menstruation according to the increased years after menarche.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6(3), 37-48
- [6] S. K. Kim. (2016). You can not stand urinating? "... Men who do not know the menstrual period.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01/2016070102047.html
- [7] E. A. Impett, L. A. Peplau. (2003). Sexual compliance: gender, motivational, and relationship perspectives. *The Journal of Sex Research*, 40(1), 87-100. DOI: 10.1080/00224490309552169
- [8] S. M. Ho.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of the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9] H. S. Choi, E. D. Lee, H. Y. (2013). Ahn. Relationships among premenstrual syndrome, perfection and anxiety among the college student.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9(4), 265-274. doi.org/10.4069/kjwhn.2013.19.4.265
- [10] S. Y. Kim. (2017). *Menstrual attitudes, menstrual stress and premenstrual syndromes in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 thesis, Konyang University. Daejeon.
- [11] M. Kleinstäuber, K. Schmelzer, B. Ditzen, G. Andersson, W. Hiller, C. Weise. (2016). Psychosocial Profile of women with premenstrual syndrome and healthy controls: A comparative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 Medicine*, 23(6), 752-763.
- [12] M. S. Yoo, J. W. Park, & M. A. You. (2012). The relationships among gender egalitarianism, sexual attitudes and sexual harassment myths among Korea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16 (1), 14-22. doi: 10.21896/jksmch.2012.16.1.14
- [13] J. H. Min. *Effects of menstrual self-management education program of high school female students*. Unpublished Master thesis, Chungnam University, Daejeon.
- [14] N. M. Kang. (2018). A comparative study of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menstruation among men and women in their twenties. *ATE*, 8, 193-213
- [15] Y. T. Chang, M. Hayter, M. L. Lin. (2012) Pubescent male students' attitudes towards menstruation in Taiwan: implications for reproductive health education and school nursing practice. *Journal of Clinical Nursing*, 21(3-4), 513-21. doi: 10.1111/j.1365-2702.2011.03700.x. Epub 2011 Feb 25.
- [16] L. Mason, M. Sivakami, H. Thakur, N. Kakade, A. Beauman, K. T. Alexander, A. M. van Eijke, K. F. Laserson, M. B. Thakkar, P. A. Phillips-Howard. (2017). 'We do not know': a qualitative study exploring boys perceptions of menstruation in India. *Reproductive Health*, 14(1), 174.

- doi: 10.1186/s12978-017-0435-x.
- [17] C. Y. Cheng, K. Yang, S. R. Liou. (2007). Taiwanese adolescents' gender differences in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s menstruation. *Nursing Health Science*, 9(2), 127-34.
- [18] G. S. Jung, H. M. Oh, I. R. Choi. (2014). The influential factors on premenstrual syndrome college femal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5), 3025-3036.
doi: 10.5762/KAIS.2014.15.5.3025
- [19] M. Kathleen B. Lustyk, Winslow G. Gerrish, Haley Douglas, Sarah Bowen, G. Alan Marlatt. (2011). Relationships among premenstrual symptom reports, menstrual attitudes, and mindfulness. *Mindfulness*, 2(1), 37 - 48.
doi: 10.1007/s12671-011-0041-x
- [20] H. J. Jo. (2017). *The Mediating Effects of Irrational Belief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emale University Students' Premenstrual Syndrome (PMS) and Menstrual Attitudes*. Unpublished Master thesis,, Daegu University. Daegu.
- [21] Y. M. Lim. (2018). Female worker's menstrual discomforts and coping-focus on hospital worker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2), 259-266.
doi:10.15207/JKCS.2018.9.2.259
- [22] S. H. Yang. (2014). *The study on conditions of sex education by parents from the view of middle school students -Focusing on the conditions in Jeju*. Unpublished Master thesis, Jeju University, Jeju.
- [23] H. H. Cho, S. H. Moon. (2012). Factors influencing attitude to menstruation in elementary school girls according to the presence of menarche.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8(4), 302-311.
://doi.org/10.4069/kjwhn.2012.18.4.302
- [24] Y. Y. Lee, H. H. Yoon, S. H. Lee, J. S. Park, E. H. Lee, S. H. Jin. (2017). The convergence influence of smoking, drinking and stress on female college premenstrual syndrome(PM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9), 135-142.
doi:10.15207/JKCS.2017.8.9.135
- [25] W. Choi, J. H. Park, S. W. Lee, J. E. Yim, H. C. Jeong, Y. S. Lim, S. J. Han. The effects of convergent reproductive health promotion program for Korean university students on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and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3), 145-152.
doi: 10.15207/JKCS.2018.9.3.145

황 라 일(Rah Il Hwang)

[정회원]



- 1998년 2월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4년 8월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0년 9월 ~ 2014년 2월 : 수원여자대학교 간호과 조교수
- 2014년 3월 ~ 현재 : 신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공공보건사업, 노인장기요양
- E-Mail : hwangri@hanmail.net